드라마 '신의' 세트장 짓고 체험랜드로 허위보고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보조금 전액 반납 통보 이유는

문체부 "사업목적 맞게 사용된 국비 한푼도 없다" 판단

면허도 없는 업체에 시공 맡겨…전남도·장흥군 수사 의뢰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보조금 전용 의혹〈광주일보 28일 6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전남도와 장흥군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가 장흥군에 투입된 국비 24억원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정부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전액 반납 조치를 내렸다. 정부 보조금 전액이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아닌 김희선, 이민호 등 톱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 '신의' 촬영장을 짓는데 쓰였고, 그 결과물인 시설물이 핵심 설비가 모두 빠진 가건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국비는 한푼도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남도·장흥군·김종학프로덕션 MOU체결=전남도, 장흥군, 신화문화산업전문회사(신의 촬영 제작사), 대한 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1월 5일 드라마 제작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장흥 천관산 자락에 들어설 사상의학 체험랜드, 2010 통합의학박람회, 한의학이 일맥상통하다고 본 전남도가 드라마 신의 유치를 위해 김종학 감독을 3차례나 만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촬영장소는 장흥 천관산 자락에 들어설 예정이던 사상의학 체험랜드 부지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장흥군과 민간 사업자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을 드라마 신의 세트장과 부합한 건축물로 짓기로 드라마 제작사와 합의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촬영지 활용 이후 흉물 방치 실태
>
> **숙박시설 냉난방 안되고**
> **약초방 수도시설조차 없어**
> **찜질방 한지 창 구멍 숭숭**

장흥군은 나아가 종합건설면허도 없는 영화 세트장 제작 전문 업체에 24억원을 주고서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신의 세트장에 맞게 지어달라'고 시공을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 선생을 내세워 약초탕, 찜질방, 한방 진료관, 사상 의학관과 장비를 두루 갖추고 체험객을 맞아야 할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애초 사업 목적이 아닌 드라마 세트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드라마 세트장으로 짓다보니 흉물 전락=8일 찾아간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한눈에 봐도 낡은 드라마 세트장이었다. 지난 2010~2012년 사이 드라마 촬영지로 잠시 활용된 이후 사실상 방치된 탓에 시설 곳곳엔 거미줄이 쳐져 있거나 목조 자재가 썩어가는 등 운영 인력도 없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다.

애초 계획대로 약초탕, 찜질방, 한방 진료관, 사상의학관, 체험 숙박소 등 시설별로 푯말은 붙어 있었지만, 적지 않은 자본이 재 투자되지 않고서는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엔 불가능해 보였다.

10여개 객실을 갖춘 체험 숙박소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냉난방 시설이 아예 없고, 체험을 위한 약초방은 물이 필수인데도 수도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 민간자본 24억원 등 72억원이 투입된 사생의학 체험랜드라는 시설 자체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잠시 이용된 이후 아무런 설비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 지난해 2월 완공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국비와 군비 48억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애초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지 않기로 했던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만 4번이 바뀌었다. 사업부지와 시설(건물) 모두 보조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 손에 넘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흥=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28일 장흥군 관산읍 '사상의학 체험랜드' 관리사무실이 곳곳이 파손되고 문짝이 열린 채 방치돼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07년~2014년까지 국비 등 72억원을 투입했지만 필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완공돼 드라마 촬영장으로 잠시 사용된 이후 줄곧 방치됐다. 아래는 드라마세트장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의' 히트치면 모든 것 만회" 장흥군·전남도 한통속

드라마 세트장이 체험장 둔갑…어떻게 가능했나

민간사업자 4차례나 바뀌어…문체부 현장실사에 들통

"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신의'만 성공했더라면…."(전남도, 장흥군)

"전남도가 보조사업자로서 장흥군을 관리감독 잘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문화체육관광부)

드라마 신의 세트장은 어떻게 국비 등 72억원이 투입된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남도와 장흥군의 안이한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지난해 2월 완공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전액(24억원) 반납 통보 전까지 들통나지 않았다. 이는 사업을 추진한 장흥군과 관리감독한 전남도가 한통속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됐더라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보조금을 반납하고 사업을 접었어야 했는데, 되레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했다. 드라마가 히트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다.

7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애초 민간사업자 참여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에는 민간사업자가 4차례나 바뀌었다. 장흥군이 직접 책임 있게 추진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지만 부지 매입과 사업완료 후 시설 운영비 등에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법상 절차를 어기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만 축내고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흥군이 직접 시행했다면 자체 감사 기능이나 의회 승인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해 사업 자체가 지금처럼 엉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장흥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남도가 장흥군과 함께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드라마 세트장에 부합하게 건설한 뒤 드라마가 히트친다면 추후 시설을 보완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 자체도 허황됐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무려 7년씩 진행됐던 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면서 지자체가 보내 준 사진으로만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보조금 부실관리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지만, 전국에 동일한 사업이 320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장흥군과 전남도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장흥군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현장 실사를 거친 끝에 모든 시설을 사업 외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지·시설 다 있는데 국비 반납 수용 불가 행정심판·소송 통해서라도 억울함 풀겠다"

김성 장흥군수 밝혀

김성(사진) 장흥군수는 28일 광주일보와 만나 "사상의학 체험랜드의 부지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국비 전액을 반납하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수증, 시설 사진은 물론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어 "비록 제 임기 기간 이뤄진 것은 없지만, 국비를 반납할 경우 장흥군 재정은 축나고 주민 살림살이만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흥 천관산 자락에 들어선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드라마 세트장으로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대해선 "장흥군으로선 한의학을 주제로 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도 노리고 추후 시설을 보완하면 됐을 것으로 당시 실무진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자체에 일부 흠결은 있겠지만, 전액 환수 조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약서 쓰고 안전표지판 설치 승마장, 낙마사고 책임 없다"

사전에 서약서를 쓰고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사고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승마장 회원 유모씨가 승마협회장과 승마장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유씨는 승마장을 관리하는 승마협회와 교관들이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 사고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익 목적 총장 비리 폭로 무죄

총장 비리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순천 청암대 교수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승현)은 청암대 강모 총장의 비리를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폭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장모 교수 3명에게 "인터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재정 문제를 바로잡고 법인 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방법에 대해 공감을 얻고자 한 점에 비춰보면 인터뷰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념 상 정보통신망인 방송 인터뷰인 만큼 강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제초제 섞은 물에 모종 고사" 신고

쌍나팔

○…물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초제를 섞어 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던 양파 모종이 모두 고사,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

○…28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신안군 하의도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여·63)씨가 밭에 뿌리는 물에 누군가 제초제를 섞어 양파 모종 300개가 하얗게 말라죽었다고 신고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 중.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양파 모종에 뿌린 물을 담았던 고무물통(500ℓ)에는 농가에서 흔히 쓰는 제초제의 색과 향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물통 안에 있던 액체의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

/신안=이상선기자 sslee@